

‘유동성 확보’ 저축은행, 금리인상에 수익성 개선 ‘빨간불’

79개사 유동성 비율 177%에도
작년 3분기 당기순익 1.3조 감소

PF부실 우려 관련대출 비중 축소
건전성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 ↓
高리예금 통한 자금조달도 부담

주요 저축은행이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수익성 확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선 부동산 시장 한파와 기준금리 인상 등 겹악재에 암울한 실적을 예상한다.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79곳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77.1%로 저축은행 감독규정에서 정한 100% 대비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NH저축은행(190.6%)과 키움저축은행(181.5%), 키움에스저축은행(181.4%) 등은 업계에서도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업계가 건전성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반면 수익성 제고에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뉴스시스

유동성비율은 금융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3개월 이내 만기 도래 예금 등 저축은행의 부채 지급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한다. 유동성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저축과 투자 목적으로 넣어놓은 목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규모와 관계없이 수익성은 떨어진 모습이다. 지난해 3분기 전국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3393억원으로 2021년 대비 15.4% 감소했다. 아울러 상위 5곳 저축은행(SBI·OK·웰컴·페퍼·한국투자) 중 순이익이 증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기준 금리 인상 여파가 수익성 악화의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 한파와 함께 조달 비용이 증가한 탓이다.

이달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 예방을 위해 투입을 예고한 28조4000억원 수준의 정책자금 또한 저축은행업계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PF부실을 우려한 저축은행이 관련 대출 비중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했기 때문이다. 각 사별 PF비중은 차이가 있지만 업계에서는 통상 전체 대출의 10% 수준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리테일(소매금융) 감소다. 상당수의 저축은행은 개인신용대출과 기업대출을 통해 수익을 만드는데 햇살론과 같은 정책금융 상품을 제외하면 대출 문의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개인신용대출 문의가 크게 감소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건전성 관리의 일환으로 나이스신용평가 기준 신용점수 600점 미만의 저신용 차주의 대출 비중을 줄였다. 2금융권의 단골 손님인 중저신용자 대신 고신용 차주 중심 마케팅을 강화한 것이다.

연 6% 수준의 고금리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 또한 부담을 늘린 모양새다. 지난해 4분기 시중은행이 연 4% 수준의 예금 상품을 출시하자 저축은행 또한 연 6%대의 고금리 예금으로 맞불을 냈다.

지난해 4분기 저축은행업계는 362조 5865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반면 대출 잔액은 347조6708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특관상품 없이 조용한 연말을 보낸 것 또한 충분한 수준의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올해 적자만 면해도 선방일 것”이라며 “어느 해보다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고금리 여파... 작년 카드사 순익 4% 감소

기준금리 인상에 이자비용 ↑
장기카드론대출 10.9% 감소

지난해 카드사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증가했지만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이자 비용 등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22년 신용카드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의 순이익은 2조6062억원으로 전년(2조7148억원)보다 4%(1076억원) 줄었다.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1076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1%(116조원) 증가했다.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가 살아나고, 비대면 거래가 활발

해진 영향이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884조원으로 전년 대비 13.5%(105조원), 체크카드 이용액은 19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1%(11조원) 증가했다.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57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2%(2조3000억원) 늘었다.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지난 2019년 59조1000억원, 2020년 54조1000억원으로 줄어든다 2021년 55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액은 46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9%(5조7000억원) 줄었다. 카드론은 2019년 46조1000억원에서 2020년 53조원으로 늘어나다 2021년 52조1000억원으로 꺾인 후 감소세다.

지난해 누적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1억2417만매로 전년 말(1억1769만매)보다 5.5%(648만매) 증가한 반면 누적 체크카드 발급매수는 1억517만매로 전년 말(1억611만매)보다 0.9%(94만매) 줄었다. 이는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 등 대체결제 수단 활성화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전성은 악화됐다. 지난해 말 카드사의 총 채권 기준 연체율은 1.20%로 전년 말보다 0.11%포인트(p)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카드채권 연체율이 1.38%로 전년말 대비 0.14%p 상승했으며 신용판매 연체율은 0.65%로 전년 말 대비 0.11%p, 같은 기간 카드대출 연체율은 2.98%로 전년 말 대비 0.38%p 상승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금감원, 우수사례 공유로 상생금융 확대

매분기 우수한 상품 선정·발표
연말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추진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우수한 상생금융상품을 뽑아 매분기마다 발표한다. 은행권의 상생금융을 확대하려는 포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 릴레이 현장방문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조한 데 이어 은행권의 이자장사를 지적하며 상생금융 확대를 강조해 왔다.

금감원은 20일 금융회사가 출시하는 금융상품 중 사회 취약계층과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대상 상품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고령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 출시예정 금융상품이거나 기존과 차별화된 금융상품 등이다. 단,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은 제외되고 순수하게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금융 상품만 해당된다.

은행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우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

한 우대금리 제공 상품이거나 보험은 사회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료가 저렴한 건강보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보장 보험 출시 등이다.

금감원은 분기별 출시된 금융상품들을 대상으로 상품의 특징·효과·판매·관리동향 등을 고려해 각 분기 종료 후에 발표한다.

금감원 소관부서에서 1차로 검토하고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 협의체’에서 최종 심의·결정한다. 심사단계에서 불완전판매 예방책 등 리스크관리방안을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후에도 당초 금융회사 계획대로 적정하게 공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초 우수사례는 각 금융사에서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받고 5월 중에 공개한다. 이후에는 각 분기 후 익월말에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상품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연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관련 상품 출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미래에셋생명, 고액 표적항암치료 특화상품 선택

Advertorial Corner

‘온라인 암보험’ 소비자 요구 반영
고액암 7종, 일반암 대비 3배 보장

미래에셋생명이 가성비와 편의성을 높인 암보험을 출시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암 보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사후 반영한 ‘온라인 암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암 진단비에 ▲표적 항암 약물치료 ▲항암약물 방사선치료 ▲항암 방사선치료 등 3종을 담았다. 일반암 최대 5000만원, 표적 항암 약물치료 최대 2000만원, 항암약물 방사선치료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일반암 보장을 비롯해 고액암 7종은 일반암 대비 3배까지 보장한다. 그 외 표적항암약물, 방사선치료비도 추가로 지급한다. 만 0세~5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진단비형’ 및 ‘표적항암형’ 등 2개 선택지를 통해 가입 편의성을 높였다.

최근 2세대 표적항암치료가 대중화되고 있다. 표적항암치료란 정상세포와 차이가 나는 암세포만을 표적삼아 공격하는 최신 치료방식이다. 1세대 항암치료에 비해 부작용을 줄였다. 고액의 치료비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보험료는 35세 남성 기준 진단비형,

80세 만기, 20년 납, 주계약(일반암) 2000만원 기준 한 달 2만4980원이다. 기존 미래에셋생명 온라인보험 정상 유지 계약이 있는 고객이라면 3% 추가 할인 가능하다.

보험가격지수는 83%를 기록했다. 보험가격지수는 업계평균 대비 보험가격이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보다 낮을수록 저렴하다는 의미다.

이정기 미래에셋생명 디지털영업본부장은 “미래에셋생명의 온라인보험과 인원은 발병률이 높아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암, 뇌·심장 질환을 꼭 짚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상품”이라며, “고액암과 표적항암치료 포트폴리오를 모두 갖춘 미래에셋 온라인 암보험을 통해 꼭 필요한 보장을 맞춤형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카카오뱅크 ‘사기신고 계좌 안내’ 서비스

AI·머신러닝 기반 FDS 탐지
의심 거래시 이체 전 경고 메시지

카카오뱅크가 ‘사기 신고 계좌 안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기 신고 계좌 안내 서비스는 사기로 신고된 계좌에 카카오뱅크 고객이 이체를 시도하면 ‘사기 신고 계좌’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여준다.

카카오뱅크는 우선 일반 이체 및 오픈뱅킹 이체서비스에 도입한 뒤 향후 적용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자체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기반으로 가족·지인이 통화없이 이체를 요청하거나 대출을 권유하는 등 의심스러운 이체거래로 분석되는 경우 고객에게 이체전 피해예방 안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반의 FDS 탐지, 피해 예방 모니터링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